



## 디카를 이용한 항공기 촬영법(5) 망원렌즈로 항공기 따라잡기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다양한 항공기 사진촬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착륙 장면 위주로 역동적인 항공기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니다.

| 글/사진 • 예민수(para@paraview.co.kr) |



**다양한 항공사진을** 보다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진이 바로 항공기 이착륙 장면입니다. 항공기가 힘차게 막 이륙하는 모습이나 착륙하는 순간 최초로 지면에 닿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멋진 장면을 카메라 렌즈에 담는 것이 관건, 하지만 이착륙 중인 항공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잡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디카가 보편화되면서 필름이나 현상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연속촬영을 맘 놓고 촬영할 수 있게 됐고, 사진의 어려운 숙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장 한 장 신중한 촬영도 필요하지만, 빠른 속도로 비행 중인 항공기 촬영에는 연속촬영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결정적인 장면은 불과 1초 이내에 끝나버리는데 생각해서 일일이 계산하다보면 좋은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방향과 활주로에 터치다운 하는 위치에서 화면에 꼭 차게 촬영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ZENAIR CH-701, 1/500 f:8 + 1/2 공통).



35밀리 수동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500밀리 정도까지의 망원렌즈가 있어야 효과적인 항공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SKY BOY, 1/750 f:9.5).

### 망원렌즈 사용시 주의사항

#### ■ 망원렌즈를 이용해 빠르게 움직이는 항공기를 따라잡으려면?

흔히 사용하는 망원줌 렌즈는 화각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크기의 항공기 사진이 나올 수 있게 촬영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활주로 내에서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주로 밖에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비행기는 항상 바람을 마주하며 이착륙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의 방향과 활주로에 터치다운 하는 위치에서 화면에 꼭 차게 촬영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관람위치와는 차이가 생기는데, 좋은 사진을 위해서는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망원렌즈를 사용해야 할까요? 처음 이 연재를 시작할 때 카메라는 최대한 망원 기능이 잘 보강된 디카 구입을 권장했습니다. 일반 카메라수준에서 본다면 100~500밀리 정도의 망원렌즈가 필요합니다. 소형 디카의 경우 화면사이즈에 따라서 렌즈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5밀리 수동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500밀리 정도(화각이 4.5도로 표준시각의 약 10배)까지의 망원렌즈가 있어야 효과적인 항공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카에서는 디지털 줌이 있어서 화면의 일부만 확대해서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이 디지털 줌렌즈는 실제로는 촬영 후 포토샵에서 일부분만 잘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행기도 아주 가까이 근접한 경우는 일반 디카로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망원렌즈가 없이는 비행중인 항공기 촬영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바위가 지면에서 떨어지거나 붙는 지점을 피사체의 촬영 포인트라고 보고 촬영하면 촬영 포인트가 항공기의 앞모습이 될 수도 있고 뒷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ZENAIR CH-601, 1/750, f:9.5 + 1/2 stop).

■ 노출문제는 어떻게?

빠른 속도의 항공기 촬영에서 일일이 수동노출로 촬영하기는 프로들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는 셔터우선(T:셔터 스피드를 먼저 결정하면 그에 맞는 조리개 수치가 결정되는 자동모드)이나 프로그램(P)을 주로 사용합니다. 대신, 노출을 전체적으로 가감해줄 수 있는 노출보정장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하늘이 배경이 되는 항공기 촬영에서 자동노출을 그대로 믿을 경우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행기 배경인 하늘도 북쪽 하늘과 남쪽하늘의 밝기 차이는 두 배 이상의 농도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우신 경우 지금 바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도 북쪽의 하늘은 남쪽 하늘보다 푸르고 어둡습니다. 비행기의 효과적인 배경은 북쪽 하늘이 좋

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배경으로 한 밝은 색 비행기를 찍을 경우 자동 노출값 보다는 오버(+된 노출값을 주면서 나오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노출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각도에서 항공기를 따라 잡아야 하나?

망원렌즈로 항공기를 따라잡다 보면 촬영자가 촬영중간에 뛰어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즉,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한단 얘긴데, 그 위치가 결국은 사진의 포인트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바위가 지면에서 떨어지거나 붙는 지점을 피사체의 촬영 포인트라고 보고 촬영하면 촬영 포인트가 항공기의 앞모습이 될 수도 있고 뒷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착륙중인 항공기의 측면 촬영은 속도 때



측면 촬영의 경우 적절하게 슬로우 스피드를 선택해서 팬닝기법이 항공기의 속도를 표현하는데 효과적 방법입니다(STOM, 1/45, f:11).



REF 2000, 1/1000, f:8



REF 2000, 1/500, f:8

문에 가장 까다롭습니다. 프로펠러기에서는 항공기 접근속도가 시속 100km 내외라 크게 어렵지 않지만, 제트기의 경우 시속 300km 이상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측면 촬영의 경우 적절하게 슬로우 스피드를 선택해서 팬닝기법(포수가 총을 쏘듯이 따라가면서 동감을 표현하는 기법)이 항공기의 속도를 표현하는데 효과적 방법입니다. 팬닝사진은 연속 촬영된 사진 속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디카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아무리 많이 촬영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항공기 촬영에는 넉넉한 메모리 용량을 준비해서 많이 촬영하시는 것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며, 비행중인 항공기 촬영에는 연속촬영 모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초점을 맞추는 방식 중에서 한 장 한 장 맞추는 'ONE SHOT' 보다는 피사체가 연속적으로 움직여도 바로 포커스가 따라가는 'AI SERVO' 모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항공기의 자세가 나오는 위치를 알아두고 그 위치의 항공기를 화면 가득 담을 수 있는 촬영위치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배율이 큰 망원렌즈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에어쇼의 경우 먼저 전체적인 행사순서에 대한 비행코스를 익히고 나서 두 번째 쇼에서 촬영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촬영위치 선정으로 좋은 사진을 촬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렌즈교환이 가능한 SLR 디카의 경우 항공기 촬영을 위해서 고가의 초망원 렌즈를 구입해야 한다면 몇 년에 한 번 사용하려고 비싼 렌즈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효율성을 한 번 따져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렌즈가 교환되는 디카의 경우 컨버터라는 악세사리를 사용하면 기존망원 렌즈의 2배나 3배 정도의 망원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 카메라 망원렌즈로 항공기 따라잡기의 왕도는?

결국 배율이 높은 망원렌즈와 적절한 촬영 위치선정, 그리고 연속촬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물론 적절한 노출보정과 화면구성을 하려면 많은 촬영경험과 좋은 사진을 많이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피사체를 바라보는 사진가의 의식 속에 항공기는 항상 멋진 피사체로 보여야 합니다. 항공기 자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멋진 항공기 사진을 만들어 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이 칼럼을 보셨다면 자신 있게 디카를 들고 이제 항공기 촬영을 떠나봅시다. ☺



**촬영장소:** 경기도 화성시 신외리 비행장  
**촬영기종:** STOM, REF 2000,  
 ZENAIR CH-601, ZENAIR CH-701,  
 SKY BOY, JABIRU 400